



# 비운의 에이스 “이젠 웃고 싶다”

5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윤석민이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통산 75승 74S 윤석민 “가장 하고 싶은 건 우승…100승 100세이브 욕심나”

지난 오기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KIA 윤석민에게 “꿈이 뭐냐?”는 엉뚱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선수로 투수 4관왕에 올라 MVP 트로피도 거머쥐었고, 태극마크를 달고 여러 차례 감격의 순간을 누리기도 했다. 결과만으로는 실패였지만 어찌 됐든 가슴에 품고 있던 빅리거 무대에도 도전해봤다. 그리고 프로 야구 선수로서의 큰 목표 중 하나인 FA(자유계약) 대박의 꿈도 이뤘다.

늘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르고, 시즌을 보내는 선수라는 것을 알기에 문득 윤석민에게 남은 목표가 궁금했던 것이다. 다시 시작되는 시즌이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었던 터다.

잠시 고민을 하던 윤석민은 “여전히 시즌을 준비하는 게 즐겁고 설렌다. 마음은

똑같다”며 “개인적인 것은 그래도 많이 한 것 같다.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승이다”고 우승을 말했다.

그리고 ‘100승-100세이브’를 이야기했다. 선발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맞는 옷 같지만 그는 타고난 실력과 팀 상황에 선발과 마무리를 오가며 지내왔다. 2016시즌을 앞둔 그의 통산 성적은 3.18의 평균 자책점, 75승74세이브.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기록에도 욕심이 난다는 게 그의 이야기였다.

윤석민은 “아무래도 야구 선수는 기록도 남는다. 우승의 추억이 되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100승 100세이브를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민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는 ‘불운’. 유난히 승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비운의 에이스’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윤석민이었다. “그동안 운이 많이 따르지

않았다”는 말에 윤석민은 “심할 정도로 운이 없었다”고 말했다. “10시즌을 보내면서 두 번을 빼고는 3점대 이하의 평균 자책점을 찍었는데 뭔가 잘 되지 않았다. 4점대 평균자책점으로 15승을 하면 당장은 은퇴해도 아쉬움이 없을 것 같다”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윤석민은 지난 5일 LG와의 홈 개막전 선발로 시즌 첫 등판에 나섰다. 우려와 달리 1회를 탈삼진 두 개 포함 삼자범퇴로 막았다. 직구 스피드도 147km를 찍었다. 그러나 2회 빗맞은 안타들이 나오면서 3연속 안타로 1실점을 했다. 여기에 타자들도 류제국에 막혀 이렇다할 공격도 못하고 4회가 훌쩍 지나갔다. 또 승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았지만 5회 상대의 실책이 발판이 되어 역전에 성공한 KIA는 6회 타점 김주형의 투런포로 4-1로 점수를

벌렸다. 최영필에 이어 심동섭 그리고곽정철까지 무실점으로 남은 이닝을 책임져주면서 윤석민은 승리투수로 기본 좋게 새 시즌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다.

윤석민은 “시즌 첫 등판에서 승리를 했고, 경기 내용도 괜찮아서 기쁘다. 시범 경기와 스프링캠프에서 몸이 안 좋았는데 경기를 할 수 있는 몸이 된 것도 감사하다”고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쟁겨 준 친구 곽정철에 대한 이야기도 빼어 놓을 수 없었다. KIA 팬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두 사람이 나란히 승리와 세이브를 얻은 이날 윤석민은 “정철이의 세이브를 축하한다. 고생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쓰럽고 그린다. 올 시즌에는 힘들었던 것을 보상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돌고 돌아 KIA 그리고 선발로 돌아온 2016시즌이다. 한 시즌도 쉽게 지나간 적이 없었던 윤석민의 야구 인생. 올 시즌에는 활짝 웃고 싶은 윤석민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돌아온 4번타자 필 “오늘은 괜찮아요”

### 덕아웃 T 특·톡

▲오늘은 괜찮아요 = 5일 홈개막전에서 자취를 감췄던 브렛 필이 6일 덕아웃에 모습을 드러냈다. 홈개막전 4번 타자로 대기를 했던 필은 장염 때문에 라인업에서 제외됐었다. 필은 탈수 증세가 심해 병원에서 링거를 맞느라 개막 행사에도 자리를 하지 못했다. 우려와 달리 기력을 회복한 필은 6일 다시 4번 타자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몸 상태를 묻는 질문에 필은 “오늘은 괜찮다. 어제는 좋지 못했다”고 웃으며 ‘이상무’를 알렸다. 그러나 이날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필은 하루 더 쉬고 타석에 복귀한다.

▲과감하게 죽네 = 6일 취재진을 만난 김기태 감독. 마침 인터뷰실에 설치된 TV에 전날 김주형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TV

투수 견제에 아웃이 되는 장면이 나왔다. 김 감독은 “과감하게 죽네”라고 한마디 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김주형은 비록 첫 타석에서 견제사로 아웃됐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 뒤 득점을 기록했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투런포도 쏘아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다케시 코치가 오준혁 이마 짚어보더라고요 = 개막 후 세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오준혁. 스프링 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9타석에서 안타·볼넷 없이 삼진만 4개를 기록했다. 우천으로 취소된 6일 경기. 김기태 감독은 “한 템포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선발 라인업에서 오준혁을 제외했다며 “심리적으로 힘들 것이다. 다케시 코치가 괜찮냐며 오준혁의 이마를 짚어 보더라”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

## KIA 조건없는 트레이드 서동욱 영입

### 내·외야 수비 능하고 좌·우 홈런기록 ‘스위치 타자’

내야수 서동욱이 친정팀 KIA로 돌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6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조건 없는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 서동욱(32)을 영입했다. 이번 트레이드로 서동욱은 11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됐다.

서동욱은 경기고를 졸업한 뒤 2003년 2차 1라운드 4순위로 KIA의 지명을 받으면서 프로에 데뷔했다. 188cm의 장신에 장타를 겸비한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던 그는 2005년 11월 LG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팀을 옮겼다. 당시 KIA는 마해영과 최상덕과 함께 서동욱을 내렸고 LG에서 장문석, 한규식, 손상정이 건너왔다.

서동욱은 2013년에는 포수 최경철과의 트레이드로 넥센 유니폼을 입었다.

서동욱의 프로 통산 11시즌 기록은 타율 0.234, 24홈런, 116타점, 148득점. 지난 시즌에는 55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3(103타수 24안타), 15타점, 14득점을 올렸다.

입단 당시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기록이지만 서동욱은 내야는 물론 외야 수비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또 좌우연타석 홈런이라는 진기록도 가지고 있는 스위치 타자다.

서동욱은 올 시즌 넥센 유망주들이 대거 내야 경쟁을 펼치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다. 그러나 선수의 미래를 위해 넥센이 조건 없이 서동욱을 내어주면서 그는 11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김기태 감독은 “넥센과 영명업 감독이 선수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며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고 기용하겠다. 우리 선수들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



## 빅리그 1루서 만난 부산 친구

### 시애틀 1루수 이대호, 텍사스 추신수 출루에 영덩이 ‘톡’

투수의 공에 중아리를 맞고도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가 씩 웃었다.

그가 향한 1루 베이스 위를 지키는 ‘친구’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대호도 환한 미소로 추신수를 반기며 그의 영덩이를 토했다.

1991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함께 야구를 시작한 ‘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선수가 모이는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만났다.

6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추신수는 텍사스 2번 우익수, 이대호는 8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1회말 추신수가 몸에 맞는 공으로 1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두 친구의 그라운드

위 만남이 성사됐다. 둘은 미소를 보내고, 미소로 답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야수가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경기에서 동시에 선발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투타 대결은 2004년 김선우와 최희섭을 시작으로 2013년 류현진과 추신수까지 15번 벌어졌다.

추신수와 이대호는 5일 팀 개막전에서 잠깐 마주쳤다. 당시 추신수는 선발 출전했으나, 이대호는 대타로 나서 한 타석만 등장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다. 텍사스가 좌완 마틴 페레스를 선발로 내보내면서 우타 1루수 이대호에게 선발 출전 기회가 왔고, 경기 시작부터 둘의 이름이 전광판에 자리했다. 추신수와 이대호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장면이다.

이대호는 부산 수영초등학교 3학년 때 추신수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했다. 이후 추신수는 부산중·부산고, 이대호는 대동중·경남고로 진학해 둘은 ‘구도’ 부산에서 라이벌전을 펼쳤다.

2000년 캐나다 세계청소년대회에서는 함께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1년 추신수는 미국행을 택했고, 이대호는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추신수는 마이네리지에서, 이대호는 한국 무대에서 경험을 쌓았고 결국 둘은 ‘메이저리거’와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로 우뚝 섰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텍사스와 시애틀은 올 시즌 19차례 맞대결한다. 5, 6일 두 경기를 치렀고, 아직 17차례 맞대결이 남았다. 두 친구가 더 화려한 역사를 만들어낼 시간은 충분하다.

/연합뉴스

## 오! 퍼펙트

### 오승환 1이닝 3탈삼진 무실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우완투수 오승환(34)이 메이저리그 두 번째 등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오승환은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CN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 6회말 등판해 1이닝을 3탈삼진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았다.

5-5 동점에서 6회말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조디 머서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머서를 상대로는 시속 151km 포심 패스트볼 1개와 슬라이더 3개를 던졌고, 볼카운트 1볼-2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37km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빼앗아 헛스윙을 유도했다. 피츠버그 벤치에서는 맷 조이스를 대타로 냈고, 오승환은 2볼-2스트라이크에서 이번에는 시속 151km 빠른 포심 패스트볼로 루킹 삼진을 숙였다.

마지막 상대는 존 제이슨, 오승환은 조구 시속 151km 빠른 공으로 파울을 유도한 뒤 2구로 시속 118km 느린 슬라이더로 허를 찔러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마지막 공은 시속 150km 강속구로 루킹 삼진이었다.

이로써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2경기에서 2이닝,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게 됐다. 오승환은 5-5로 맞선 7회초 자신의 타석에서 대타 콜튼 윙고 교체됐다. 팀은 연장 11회말 세스 메네스가 1사 1, 2루에서 머서에게 끝내기 안타를 내줘 5-6으로 졌다.

/연합뉴스